## 화정아이파크 철거·재시공 윤곽 나왔다

주택 시공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 해체공사계획서

가 아닌 안전관리계획서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

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착공 전

에 인·허가 기관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

다. 계획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심의를 거친 뒤

승인권자인 서구가 최종 승인을 한다. 다만 이 과

현대산업개발, 일정 등 담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시 바로 철거 '다이아몬드 와이어 절삭 방식' 해체 고려 속 법적 절차도 가닥 잡혀 재시공 별도 인허가 필요 없어…시공사 의지에 따라 속도 결정될 듯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철거 및 재 시공 작업의 절차가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재 철거 방식·일정 등이 담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당국 승 인을 받는 즉시 철거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해체 공법으로 다이아몬드가 섞인 끈(와이어)으로 구조물을 잘라내는 '다이아 몬드 와이어 절식' (DWS)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법은 폭약으로 건물을 주 저앉히는 발파공법, 굴착기로 상층부부터 철거하는 크러셔 공법 등이 일반적이다. 다만 발파공법은 인근 주거지·버스터미널 등에 피해가 크고, 크러셔 공법은 불안정한 사고 동에 중장비를 올리기어려운데다 25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 적용한 사례가 없어 화정아이파크 현장에는 적용하기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DWS공법은 잘라낸 구조물을 곤돌라 등 장비로 일일이 지상으로 내려보내야 해 시간이 오 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사고 동인 201동에서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22~39층 동쪽 기둥과 남쪽 외벽을 철거하는 안정화 작업에 먼저 활용될 계획이다.

각 동별로 개별 철거를 할 것인지, 동시다발적으로 철거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안갯속이다. 현 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여러 동을 동시에 작업해 공기를 줄이고 싶으나, 초고층 건물 여러 채를 동시에 철거해 본 경험을 가진 하청업체가 없어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법적 절차는 가닥이 잡혔다. 주무 감독청인 광주시 서구는 최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거쳐 재시공 절차를 구체화했다.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화정아이파크는 '시 공 중'인 것으로 분류돼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로 취급되지 않으며, 이번 해체·재시공 작업 또한 기존 정이 최소 한 달이 걸리고 계획서가 부실하거나 보 완점이 발견되면 서류 준비에 추가 시간이 필요해 철거 작업이 계획보다 지체될 수 있다.

사고 직후 화정아이파크에 내려진 공사중지 명령도 풀어야 한다. 현재는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사고 동 22~39층 동쪽 기둥과 남쪽 외벽을 철거하는 작업만 허용된 상태다.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먼저 광주고용노동청이 현장을 확인·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유해·위험 요 인 개선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반면 재시공은 별도의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추가로 설계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착공 당시 받

았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이 여전히 유효하기

이에 따라 승인당국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마치는대로 철거가 시작될 전망이다.

결국 철거·재시공 작업의 진척은 계획서 작성, 자금 투입 등 시공사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게 승 인당국의 판단이다.

서구는 안전관리계획서가 통과된 이후라도 사고 동을 철거하는 데만 20여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현대산업개발은 전체 8개 동 철거 및 재시공까지 70개월(5년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철거·재시공 작업에 대한 공법, 법적 절차 등 구체적인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 '5·18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도 피해자들 승소

광주고법 "정부 위로금, 위자료에 해당 안돼"…항소 기각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경찰에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 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 해다

광주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1일 5 ·18 항쟁 당시 고초를 겪은 시민 5명이 대한민국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의 항 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심 재판부는 원고 이덕호(63)·고(故) 남승우 (사망 당시 59세)·나일성(60)·김용선(62)·김정 란(61) 씨에게 각각 4000만~1억원을 배상하라 고 판결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5· 18 보상금은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5·18보상법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 가운데 '위로금'의 경우, 원고 측이 이번 재판을 통해 요구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금)와 법적 성격이 같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이씨는 1980년 5월 23일 민주화운동 시위 도중 계엄군이 쏜 총에 다리를 맞고 49일간 구금 됐다. 고인인 남씨는 1980년 5월 27일 상무대로 연행돼 217일 동안 구금됐으며 고문 후유증 등으로 투병하다가 2019년 사망했다. 나씨도 항쟁 마지막 날인 1980년 5월 27일 신군 부의 옛 전남도청 진압 작전에 맞서다가 체포돼 157일간 구금됐으며 계엄군에 심하게 구타당했 다. 김용선씨는 1980년 5월 18일 광주 충장로에서 체포돼 곤봉으로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했고 148일간 구금됐다. 그는 난청과 허리디스크 등 질 하은 아이다.

김정란 씨는 1980년 5월 28일 광주에 있는 후배 집에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한 뒤 구금돼 37일간 고초를 겪었다.

이들은  $2018년 12월 국가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현재까지 <math>5\cdot18$  유공자와 유족 등 2000여명이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해체계획서 무시 공사 진행 광주 남구, 해체 감리자 고발

공사 가림막이 도로를 덮친 광주시 남구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 사에 들어갔다.

광주시 남구는 지난 4일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 건축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해체 감리자를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광주남부경찰에 고발 했다고 11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달 14일 사고 직후부터 해체 작업을 전면 중지시키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해체계획서 와 달리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철거 업체가 남구에 제출한 해체계획서에는 '압 쇄 공법'을 활용해 천장 슬라브→벽체→바닥 슬라 브 순으로 해체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조사 당시 3층 벽체가 채 철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3층 바닥 슬 라브 일부가 철거돼 있었다는 게 남구 설명이다.

이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재개발구역 철 거건물 붕괴사고'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 다. 학동 참사 당시에도 건물 5층부터 외부벽→방 벽→슬라브 순으로 해체하기로 한 계획과 달리 지 상부터 공사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났었다.

경찰은 철거 과정이 담긴 CCTV 등을 토대로 해체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14일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는 벽돌과 콘크리트 더미가 쏟아져 공사 가림막이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은 '학동 참사의 축소판'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생후 2개월 신생아 뇌출혈 아동 학대 혐의 친모 조사

생후 2개월 된 신생아의 CT 검사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의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광주동부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친모인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4일께 주거지인 전북 고창에서 자신의 딸인 B양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호전이 되지 않자 3차례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측은 검사결과 B양이 뇌출혈 진단을 받자 아동학대를 의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처음에는 "B양이 스스로 굴러 떨어졌다"고 말했다가 "실수로 B양을 떨어뜨렸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아동학대 정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은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는 지침에 따라 사건을 광주 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앞)

상무지구(상가매매)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총분양 140평)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경매교육 [ <sup>특수전문반</sup> 기초반,중급반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산구 삼거동(임야)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 동구 지산동(농지)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

북구 생용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 7천 (5/12) 광주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

북구 용봉동(주택)▶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 동구 운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5/11)

남 남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최저가 1억7천 (5/18)

목포시 상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 충남 서천군(근린주택)▶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5/23)

010-6670-9800